

# “선거제도 올해 내 개편 민생 속 당 활로 찾겠다”

정동영 민주당 신임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호남민심 반영해야  
무소속 동참해주면 교섭단체 재구성 가능  
일자리 창출·재벌 개혁 등 정책행보 강화

민주당 정동영(65) 신임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상과 민생 속 당의 존재감과 활로를 찾겠다고 했다. 약자 편에서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담겠다고도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 판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나타났다. 대표 당선 이후, 3일 연속 이어진 현장 강행군에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비전을 담은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당 생존을 위한 타개책은. 호남 정치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이 성공하면 호남 정치의 길이 열린다. 민주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이, 국민이 지지할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결국 호남 정신, 시대의 가치와 함께 해야 한다. 약자 편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강이 소리 들어가면서 끝내 정권 창출을 이룬 것도 약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교섭단체 재구성 가능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호남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위해 무소속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다.

-호남 정치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다. 평화당의 책임이 크다. 평화당은 확실한 정체성과 노선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것이다. 서민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겠다. 약자 편에 서겠다. 특히, 기술이 없고 왜곡된 선거제도를 기필코 개편하겠다.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결집이 요구된다.

-정계개편 가능성과 방향,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선거제도 개혁이 전이개혁 수준의 정계개편을 이끌 것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 기존 정치적 질서를 바꾸 정계개편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한 입장은. 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전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이를 풀지 않고 이뤄질 수 없다.

-선거제도 개편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 방향과 당 위성을 제시한다면.

▲지역구를 그대로 하고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53명을 더 뽑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국회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10년 동결이다. 같은 새경주고 머슴을 더 쓰는 격이다. 선거제도는 70년 된 낡은 제도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전환이 이끌어낸 눈부신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그보다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당선자 평균 득표율은 48%다. 52%는 사표다. 대의제도가 기형 그 자체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한 명 빼 놓고 전부 대졸이고 대부분이 상위 1%내에 들어간다. 국민 대표가 아닌 기득권 대표 구조다. 이를 타파하고 민생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올해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현재일우의 기회다. 보수 진영은 선거제도 개편없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5일 선출되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에게 선거제도 개편은 생존 조건이다. 올해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도 개편이 호남에 미치는 영향은.

▲호남 민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한 곳에 갇히지 않고 인물과 정당의 교차 지지를 통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수도권 등 전국에 분포한 호남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선거제도 개편은 결과적으로 진보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게 된다.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좀 더 민생에 접근해야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등 우클릭도 우려된다. 관료들에게 포워되어 재벌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벌에 손 벌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국회의장 만나 전남 현안사업 국회 지원 건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광역관광벨트 등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여수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을 만나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의 경우 한반도의 아열대에 대비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전남에 ‘국립 에코생태 식물공원’을 조성해 싱가포르 ‘가든 바이 더 베이’와 같은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가진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이 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관광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 센터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조기 완공 및 전철화 ▲완도-고흥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김 지사는 또 “과거 정부의 SOC 장기계획에 전남에 꼭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 많이 빠져 있어 국고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역 균형발전 및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전라선

(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힘껏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전공대 설립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전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통부채 만들어요” 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 ‘두근두근 기쁨 뛰는 우리고전’ 부채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강사들과 함께 고유의 전통부채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이병훈 광주문화부시장, 정부·정치권 인사 면담

수영대회 등 지역현안 지원 요청

광주시가 현대자동차 광주공장 유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한전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8-9일 이틀 동안 서울을 방문,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8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면담, 광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내년 7월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

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학생들에게 국제 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초·중·고, 대학에 수영대회 홍보 및 관람과 대회기간 중 전국 초·중·고의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공대와 관련 이 부시장은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에너지산업 핵심 기지화, 국가 신성장 동력원이 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또 8일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민주당 김경진 의원 그리고 9일

에는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송갑석·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내년도 광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가 지원, C-ITS(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현대자동차 유치와 관련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 현대자동차와의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를 방문해 현대측 관계자와 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